



黒字時代の 주변환경과 對應視角

(기계공업을 中心으로)

한국정밀공학회 정 현 울

1. 序 說

지난해 우리나라 經濟는 안정속에 고도성장과 國際收支흑자를 기록한 값진 보람을 느낀 한 해였다. 그러나 이같은 黒字基調는 개개企業의 성장잠재력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3低要因을 배경으로한 수출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으로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장래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는 各界各層이 보는 視角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油價나 국제金利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국제경상수지흑자時代를 열어준 3低好材는 확실히 변화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海外要因변화에 매우 예민함으로 지금 黒字基調가 정착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른것 같다. 적어도 흑자기조가 정착되려면 모든 産業간·계층간·지역간의 불균형이 시정되고 기존의 産業基盤을 내실화하는 단계에 있을 때 비로서 黒字경제의 向背가 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貨의 지속적인 評價切上·円貨강세에 따른 원자재가격폭등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위협을 주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흑자의 적정선유지를 위해 對美購買사절단의 과견, 수입선의 多邊化, 수출支援정책의 縮少등 다각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써 일응 올바른 판단으로 수긍하나 다만 업종에 따른 特性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機械工業은 20년의 짧은 近代

化建設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의 水準과 規模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技術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대부분의 基礎素材와 핵심部品이 海外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계공업이 명실공히 先導産業으로써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계류의 輸入國에서 수출국으로의 탈바꿈을 할 때 비로소 成就될 것이며, 이 때가 관련산업간의 不均衡이 시정된 黒字時代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昨今の 주변환경은 序頭에서 언급한 3低好材에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변환경에 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중의 하나인 원貨切上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원貨切上내용을 중심으로 附加的으로 수반된 몇가지의 현안문제와 함께 點檢해 보기로한다.

가, 원貨切上幅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올해들어 미국의 對韓門戶開放압력은 더욱 거세어지면서 원貨切上압력은 심지어 I.M.F.(국제통화기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先進7개국 頂上회담에 까지 飛火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貿易協會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貿易黒字는 지난해 보다 11억달러가 늘어난 4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원貨切上이 이대로 가속화 될 경우 89년에는 무역흑자幅이 격감하거나 赤字로까지 발전될 우려가 있는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換率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원貨가 현재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 내년에도 切上幅이 15%(88년말 680원)에 이를 경우 貿易收支는 내년

중 올해의 절반 수준인 21억달러 赤字에 그치고 89년에는 17억달러의 赤字로 발전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아물든 원貨切上폭은 保守的으로 전망하기 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는것이 옳을것 같다.

지난해 원貨切上幅이 3.2%에도 업계에 준 충격은 없지 않았는데 올해 절상폭이 이대로 가면 10%선을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연초이래 7%정도의 線으로 고수할 것을 시사한 바 있으나 지금과 같은 推移로 보아서는 10%선을 훨씬 넘을것 같다. 어쨌든 올해 환율변동폭이 클 것으로 可視圈에 잡힌 이상 이의 대응책은 시급하다. 특히 企業銀行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貨의 對美달러 환율이 800원線으로 떨어지면 국내 중소기업의 80%이상이 赤字經營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 輸入원자재 가격上昇·求得難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大韓商議가 조사한 원자재수급상태에 따르면 주요輸出産業인 섬유·철강·電子·化學등의 경우 수입원자재 폭등에다 웃돈을 없어도 원자재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機械工業도 例外가 될 수 없다. 금년에도 계속 好調를 보이고 있는 相關산업의 投資需要로 인해 主要核心部品の 輸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아 對日貿易赤字는 크게 벌어질 것 같다. 우리는 작년의 흑자패거속에서도 대일무역역조는 54억달러이었고, 機械류의 대일역조는 57억달러라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렀다. 더우기 최근 日本은 핵심기술移轉을 꺼려하면서 円강세의 利點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는점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5월 18일 商工部長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日本에서 輸入한 부품에다 단순한 組立形態의 製品수출은 막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우리나라가 日本의 組立基地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이같이 對日의존에서 오는 부작용은 지역간의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발전됨은 물론, 輸入의존으로 인한 타성적 여파로 公업발전을 정제시키고 있다.

다, 輸出業界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換率정책과 함께 축소금융·관세특혜폐지등 다각적인 施策을 펴나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선택은 현실에 어쩔 수 없는 處方이라고 일응 긍정하나 당장 업계가 받는 衝擊은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代替的 보상조치를 동시에 강구하여 적어도 업계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保護조치가 동시에 강구되었으면 한다. 특히 機械나 産業設備는 수출개척단계에 있는 업종인만큼 활성화 될 때 까지에는 상당한 投資가 요망되고 있는데다 무역금융을 비롯하여 각종 수출支援제도 축소로인해 앞으로의 輸出이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달 3일 貿易協會가 272개 주요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資料에 따르면 輸出好調속에서도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運轉·設備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요수출업체의 90%이상이 울들어 輸出이 늘어나고 있으나 마진율이 好轉됐다는 업체는 19.6%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볼 때 업계의 수출채산성에 한계가 도래하였음을 직감할 수 있다.

2. 對應親角

우리를 둘러싼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는 결코 우리에게 평탄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결정은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産業施策에 참여하여 共同步調를 취하는 한편 業界스스로가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당면한 課題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의 方案을 提示해 본다.

(1) 對美흑자·對日적자를 基調로한 지역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限 미국이나 구라파諸國으로 수출을 전환하므로써 通商마찰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하겠다. (정부와 공동보조)

(2) 원貨切上의 利點을 최대로 활용하는 길을 터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

(3)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원가절감 및 生産性向上을 기하고, 제값받기를 통하여 輸出단가를 끌어 올려야 하겠다. (개별기업)

(4) 製品의 다양화로 수출規制를 피하고 高附加 가치의 상품개발로 實利를 追求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

(5) 對日수입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계류 및 주요部品國産化計劃을 조기에 達成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시켜야 할것이다. (정부, 개별기업)

(6) 元貨切上폭을 금리인하 또는 준조세경감등으로 상쇄하는 폭넓은 代替的 연계운용方式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

(7) 수출금융 융자단가再引上으로 최소한의 수출채산성은 확보되어야 야하며, 관세유예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정부)

(8) 모든 産業육성정책 입안시에는 반드시 당해 분야의 機械類國産화와 기계의 국내외 조달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정부)

(9) 海外의존도가 높고 초기개발을 서둘러야 할 업종에 대하여는 정부산업시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예외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기계공업에 대하여는 海外協力基金의 지원등을 비롯한 特段的 지원시책이 배려되어야 한다. (정부)

(10) 新市場의 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를 통하여 通商마찰을 해소하며 동시에 수출확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기업)

3. 結 論

元貨의 대미달러절상폭은 현재의 가속화추세를

年率로 고쳤을 경우 12~13%선까지 이를 전망이다. KIET(산업연구원)가 분석한 내용을 빌리면 元貨가 10% 평가절상될 경우 17,000명 가량의 失業者가 발생되고 G.N.P.는 1.07%떨어지며 輸出이 7.1%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經濟의 취약한 기초조건을 감안한다면 元貨의 評價切上이 가져올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믿어진다. 6월말경에 열리는 韓·美年例경제협의회에서 美國측은 다시 元貨의 대폭적이며 빠른切上을 제기해올 것이 분명하다. 事態가 이쯤 발전된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충격을 덜 받는 突破口를 찾아야 하겠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낸다」는 互惠的인 원칙에서 볼 때 미국을 주력市場으로 갖고 있는 한 얼마만큼의 市場을 터주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문제는 企業人이 위험부담을 덜 느끼고 投資 및 生産에 참여할 수 있겠음 정부가 베풀어주는 인센티브가 制度的으로 확립되었으면 한다.

지금과같이 밀리고 쫓기는 輸出여건에서 정부는 적어도 企業의 채산성에 관심을 둔 政策執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企業의 채산성 補填을 金利인하로 상쇄해 주거나 불가시에는 租稅輕減등 부담을 덜어주는 代替的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그럼으로 대응할 수 없는 個別企業의 고충은 說得力있는 업계의 呼訴가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때 黑字時代를 向한 未來의 환경은 앞당겨 질 것이다.